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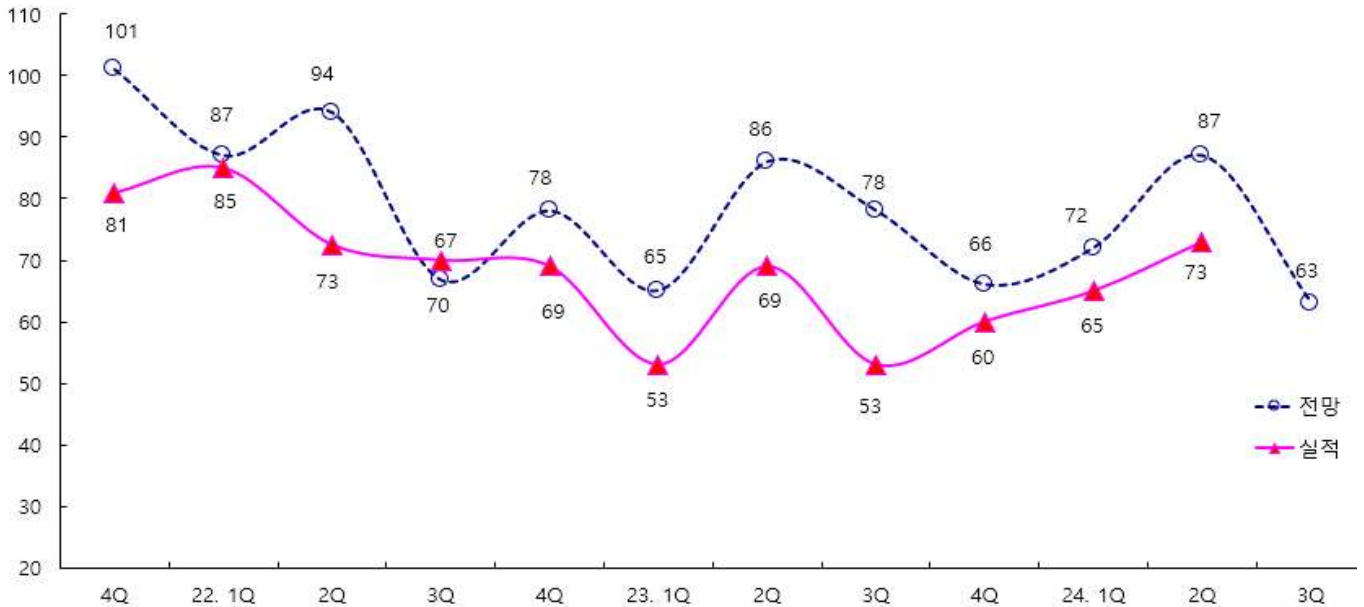
본 자료는 안산상공회의소 홈페이지(ansancci.korcham.net) > 새소식 > 보도자료에 수록되어 있음.

안산 제조기업 24년 3분기 경기전망지수 '62.9', 중국 저가 공세로 위기 대두

- 안산지역 BSI 62.9, 전국·경기 평균 크게 하회
- 내수 부진과 원자재가 상승, 하반기 실적에 큰 영향
- 중국의 과잉공급 및 저가 공세로 인한 피해 우려
- 국내 산업 보호조치 강구·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등 실질적 지원책 마련해야

안산상공회의소(회장 권혁석, 이하 안산상의)는 7일 안산지역 소재 제조기업 140개사를 대상으로 2024년 3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를 조사한 결과, '62.9' (전국 89.0, 경기 91.3) 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3개년 안산지역 기업경기전망지수(종합)



세부 업종별로는 비금속(120)이 호조를 전망했으며, 석유화학(95)은 보합을 전망했다. 섬유·의복(86), 전기전자(79), 운송장비(75)는 부진을 전망, 그 외 철강금속(72), 기계설비(68), 목재종이(67)는 침체를 전망했다.

올해 하반기 사업 실적에 가장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으로는 ▲ 내수소비 위축(32.9%), ▲ 원자재·유가 상승(30%), ▲ 해외수요 부진(12.9%) 등이 있었다.

최근 여러 산업분야에서 중국의 과잉공급 및 저가상품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응답 기업의 실적 및 경영상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현재 영향 없으나 향후 피해 가능성 있음(40%)'이 가장 많았으며, '매출·수주 등 실적에 영향 있음(37.9%)', '영향 적거나 없을 것으로 전망(22.1%)'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저가·물량 공세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로는 ▲내수시장 거래 감소(46.4%), ▲판매단가 하락 압박(22.7%), ▲중국 외 해외시장 판매 부진(15.5%), ▲대중국 수출 감소(10%) 등이 집계됐다. (복수응답)

응답 기업의 기술력 및 품질 경쟁력을 지난 5년 간 중국의 경쟁기업들과 비교하였을 때, '우위에 있으나 기술격차 축소(43.6%)'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비슷한 수준까지 추격당함(27.9%)', '계속 우위에 있음(22.9%)', '중국기업에 추월당해 열위에 있음(5.7%)'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 기업들의 기술 성장속도를 고려할 때, 응답 기업의 기술력을 추월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시기로는 '4~5년 이내(43.9%)'가 가장 많았으며, '2~3년 이내(29.5%)', '6~10년 이내(17.4%)', '1년 이내(6.8%)', '10년 이상 소요(2.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중국의 저가물량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응답 기업들은 ▲고부가 제품 개발 등 품질향상(31.1%), ▲제품 다변화 등 시장저변 확대(21.3%), ▲신규 수출시장 개척·공략(18.1%), ▲인건비 등 비용 절감(13.4%), ▲현지생산 등 가격경쟁력 확보(11%) 등을 마련하거나 검토 중에 있다고 응답했다. (복수응답)

마지막으로, 중국의 수출 확대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정책으로는 '국내 산업 보호조치 강구(35%)'가 가장 많았고, '연구개발(R&D) 지원 확대(27.9%)', '신규시장 개척 지원(15.7%)', '무역금융 지원 확대(10.7%)', 'FTA 관세혜택 활용 지원(7.9%)' 순으로 나타났다.

안산상의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는 제조기업들이 직면한 어려움과 긴급한 지원 요구를 보여준다. 특히, 중국의 저가 공세로 인해 많은 기업이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중국의 시장 지배력과 빠른 기술 성장에 대비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들의 요구에 발맞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연구개발 및 신규시장 개척 지원 등 실질적인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경기전망지수(BSI)가 100 이상이면 '이번 분기의 경기를 지난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뜻하고, 작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 <붙임> 『2024년 3/4분기 안산지역 기업경기전망지수 조사 보고서』 1부. 끝.